제435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81. 3. 22 (1)

사순 제3 주일

기도서 P 257 A해
제1독서(출 애 17, 3—7)
제2독서(로 마 5, 1—2, 5—8)
복 음(요 한 4, 5—42)

숲정이

발 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2935

□강 론

마음의 눈

이 재 후 신부

봄을 맞기 위하여 긴 겨울이었나 보다 희망찬 봄이기를 바라것만 유독스럽게 눈이 많은 겨울이어서 순산인지 난산인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혼탁한 세상을 닮아 감인지 눈이 바로 떠지질 않는 것만 같다. 인간은 반듯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신앙의 눈을 통하여 더 깊은 면을 볼 수 있으련만 오늘 우리들의 눈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던 눈은 여러가지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유대인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창문이 여러가지 색갈로 되어 있으면 안에서 빛을 받는자는 그 색갈을 통하여 다르게 받아지게 된다. 우리 인생의 눈이 나쁘게 되면 역시 마음에 받는 것도 다르게 되어 편견과 증오와 질투와 자만심이 가득하며 곧 비틀어진 견해를 가지고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마치 촛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이 육신의 눈에서 보는데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었다. 또 주님의 시선이 여인의 마음을 찌를때 양심의 눈은 빛을 보게 되며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 여자는 불순한 죄악된 생활속에서 마음으로는 옛날 다윗왕의 찬란한 업적을 회고하는 메시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심령의 눈이 바라는 욕망이요 따라서 온 인류의 누구에게나 있는 영혼의 갈망이다. 인간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영혼은 구세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삼일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 이것은 신앙의 눈이 떠야 나의 구세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였다(에페 1장 18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는가? 육신의 눈, 이지의 눈, 양심의 눈, 영의 눈, 혹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르는 신령한 눈을 떠야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고 바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월명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스타스키와 허치

부모들이 자녀들과 마음 상하는 일꺼리들이 갖가지다 아마 최근에 들어서는 텔레비젼 때문에 그러는 일이 많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텔레비젼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더니, 국민학교 꼬마가 "아빠, 입장 좀 바꿔 생각해주세요"라는 항의를 하더란다. 글쎄다. 머리가 큰 아이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가 있다. 그러나 국민학교 저학년일수록 문제가 있다.

어떤 부모가 금년에 국민학교 입학하는 꼬마를 주일학교에 안내하면서 진땀을 뺐다 한다.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 한 시간(교리시간)을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아이에게 제안을 했다.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주일학교에 가자."—"싫어요." "왜?"—"스타스키와 허치를 보아야 해요." "몇신데?"—"좌우간 안가요." "좋아, 아빠가 스타스키와 허치는 책임지지."」 그러고서 시간표를 보았더니, 주일학교와 아동미사를 끝내고도 가능한 시간이더란다. 가까스로 재방송 시간을 대주고서 그 부모는 여러가지로 생각했다고 한다.

자유당 정권때 이승만씨는 유시(諭示)를 자주 발표했다. 유시라는 낱말의 뜻인즉「(관청에서 백성에게) 타일러 가르침」이다. 자신을 국부(國父)라고 생각하는 이승만씨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위 〈유시〉를 내려 정답아닌 정답(?)을 명령처럼 제시하곤 했다. 어떤 때는 정치문제, 또는 종교문제(불교분쟁 등), 학술문제(한글간소화 등) 까지에도 유시를 내렸다. 윗사람 말이면 숨도 크게 못쉬던 당시의 공직자들은 과잉충성을 보여 많은 부조리와 독재의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를 거두었다

텔레비젼때문에 유시는 내릴 필요가 없다. 그 씨앗이 맺는 열매는 독소가 더 크기 때문이다. 윗사람이라고해서 항상 옳은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숲정이 산책

성서는 하느님 이시니

□200주년의 목소리□

이웃 전교의 모범

전국의 모든 교구와 본당, 본당과 공소와 구역, 또 크고 작은 평신도 조직체들이 이웃 전교의 해를 맞아 총동원되어, 이웃 전교의 열성으로 불타고 있음은 실로 하늘의 섭리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은총이 넘쳐흐르는 거룩한 일이며, 20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기념행사중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주일이면 고해, 영성체와 "듣는 강론"에 그쳐서, 침묵하며 고요히 성당문을 나서던 우리 신자들의 자세가, 이제는 활력이 넘치는 전도자의 늠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읍니다. 이제 모든 본당 신부님들의 강론은 듣는데 그쳐지지 않고, 자신이 각자 실천하며 남들에게 전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200년전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성현들의 불같은 열성과, 자발적이며 온전히 희생적인 생애를 오늘의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그 정신을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즉 200년전 우리 선조들이 오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웃 전교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잔인하고 혹독한 박해들을 극복한 순교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과 생활을 모범으로 삼아 과감하게 나갑시다. 구세주 천주 성자의 뒤를 따르는 이 무수한 순교 선열들의 발자욱을 밟으며, 용감하게 행진합시다. 우리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갑시다. 하루에 5천명씩을 영세주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 처럼, 구원의 진리를 외치며 온전히 몸바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끓고타며 동분서주하던 "전도자의 생활"을 매일생활의 "제1의 삶"으로 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며 생활로 옮기는 진리와 은총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결코 교리지식의 전달이나, 신학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달, 신앙정신의 전달이라야 하겠읍니다. 혹시라도 단순한 "천주교회의 회원" 증가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천주교 신자"의 증가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200주년 사무국 제공)

사순절 헌금에 최대의 성의를!

부족한 사제 양성, 성소 후원을 위해서 사순절 성금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저금통의 동전 한푼 한닢이 신학생의 쌀이 되고 책이 됩니다. 교우들의 뜨거운 정성을 빕니다.

—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들을 귀

지선악과(知善惡果)

창세기 2장 96절에 "또 그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이 선과 악을 알게하는 지식의 나무는 창세기 인간타락 이야기의 열쇠이다.

인간이 낙원에서 누리던 행복은 어떤 계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고 또 아모스 5장14~15절에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할 수 있다.

창세기 인간타락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에와는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금령의 과실을 따 먹었고 아담에게까지 따다가 준다. 이렇게 그들은 하느님을 떠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결국 그들은 악을 선택하였고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현대 인간의 마음속에도 돋아나 있다. 소위 양심의 소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이다. 양심은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에 달아 놓은 "종"과 같고, 선과 악을 달아 보는 "저울"과도 같다.

모든 인간의 양심에는 선과 악중 어느 쪽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양심은 지금도 우리 마음안에서 이 자유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항상 촉구하고 있다. 〈김종길 신부〉

미국「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의 진상

최근 여러 본당에 소위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미카엘" 이라는 제목의 이상한 유인물이 유포돼 혼란을 빚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확인 조사해 본 결과 유인물 단 한가지도 어느 교구장의 출판 인준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 부룩크린 교구의 "신빙성이 없다"는 공식 회답이 있었다. 따라서 진실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타 가끔 무단히 전달되는 이색 유인물들에 대해서도 어느 교구장님의 인준이나 교회의 공식 견해가 없을 시는 일단 부실(不實)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리고 의심스런 사례를 접할 때는 언제든 교구에 문의, 확인해 주기 바란다.

〈교구 사목국〉

□ 표 구 일 절
□ 서 화 매 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딩)
전화 ② 6445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인원 : 남자 약간명
2. 응시자격 : 고졸 이상으로 만30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제출서류 및 전형일자
① 자필이력서 1통(명함사진 2매)
②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③ 1차 필기시험 : 81년 4월 2일
4. 서류 접수기간 : 3월25~3월31일
기타 총무과에 문의(⑥0191)
전주 대건 신용 협동 조합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셉)

남원, 신태인, 부안, 함열 본당 등 성전 보수에 신자들 앞장

하느님의 궁전이요 우리들의 곳집, 성당을 단장하고 살피는건 신자 최상의 도리요 의무중의 하나, 바로 그 본당 신심과 열도(熱度)의 「바로미터」다.

어려움 중에서도 정성을 모아 값진 선공(善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부님들과 회장님들, 그리고 그곳 교형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숙한 사의와 성원을 보내드린다.

꾸르실료 소식

1월에 이어 금년 다섯번째로 「크리스챤 생활의 꾸르실료」가 다시 3월 16일부터 가톨릭센타에서 개최 됐다. 남성은 불행히도 사정상 여름으로 연기 됐지만 여성들의 열의는 대단해서 이번에도 수강신청이 쇄도, 선정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하는 수 없이 23일부터 한차례를 더 실시키로 하고 우선 11차 44명이 수강을 했는데, 즐거운 비명이긴 하지만 연이어 고된 희생을 치뤄야만 될 임원들께 여간 죄송한 일이 아니다.

모두 가사에 쫓기는 주부들이라 그래 무엇보다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식구들께 먼저 깊은 양해와 아울러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벅차긴 해도 함께 주님을 위해 또 바쳐보려는 이들의 작은 노력, 귀한 봉사에 교형들의 따뜻한 성원 있으시길 빌 뿐이다. 23—26일(여성 12차)에의 더 큰 관심과 협력을 고대 하면서—.

가톨릭 농민회 조사 교육 실시

지난 14일 교구 농민회는 천삼백만 농민을 대표하여 쌀값의 적정 가격을 조사할 조사원 교육을 50명이 참석하여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00여명이 넘는 조사 희망자 중에서 50명을 엄선하여 교육을 실시 했는데, 조사원으로 선정된 자신들의 정확한 기록이 전체 농민을 대변할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조사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교육을 마쳤다.

단합 의지 새롭힌 고산 농민회 정기총회

지난 주일, 전북 최다(最多) 공소를 자랑하는(22개) 고산 본당에선 10시 30분 개회 미사와 함께 소박한 농민들의 대집회(정기총회)가 오후 5시까지 베풀어졌다. 새로운 다짐과 조직의 강화를 기약한 200여회원들은 임원으로 다시 임생수 회장과 유 신 부회장, 그리고 장경암 총무를 그대로 만장의 박수 속에 유임 시켰다. 그들 공과와 열의에 대한 뜨거운 성원 이리라.

고산 본당과 농촌 복음화의 기수, 본 농민회의 일익 발전 있기를 충심으로 빈다.

숲정이 『광고』 이용 안내

교구보(敎區報) 숲정이의 보다 원활한 편집 운영과 보급, 그리고 교우들 간의 유대 협력에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광고 한 칸 1회 3,000원(2·3면)
2. 전주시 외의 기타 지구 것은 1회 2,500원
3. 전주시 외의 광고는 각지구 본당소식(4면) 밑에 따로 실어드림(별도 조판)
4. 만화(요십이) 밑의 광고는 주로 결혼, 회갑, 부고 등 애경사와 모집광고로 이용 바람(2~3칸을 하나로 쓸수 있음).
5. 각 광고는 2주 전에 직접 편집실이나 본당 사무장께 신청 하십시요(선착순 게재함)

〈숲정이 편집실〉

속 독 법

300p책 : 3～5분 소화
대 상 : 학생. 언론인. 종교인 사회인. 기타
강사요원 환영

농협 도지부 앞

속독개발연구원

☎ ⑥ 2537

배 남 식(토마)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 킹 검 Buckinghei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 율 리 안 나

전기 온수기 까스렌지 및 시설
까스 온수기 각 종 씽 크

백 곰 표 씽 크 주 방

(東南綜合 씽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꽃! 꽃! 꽃! 꽃다발
새 꾸르실리스타 탄생축하!

진 선 미 꽃 집

19일 센타에서
직접 제작, 판매, 봉사합니다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또(덕배)·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꾸르실료 여성 12차 : 3월 23~26일
2. 레지오 신설 Pr. 간부 연수 : 3월 27~28일, 센타
3. M.B.W 임원 피정 : 3월 24~25일,
4. 제23대 전주교구 중·고등 연합회 임원명단 : 회장—이재혁(미카엘)〈남원〉, 부회장—조점례(젬마)〈덕진〉
5. 제4지구 중·고등 학생회장 : 회장—조형진(요한)〈서학동〉, 부회장—박숙희(세시리아)〈전동〉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유 종 환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김 병 구

1.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아치에스 29일 오후 2시 성당
2. 사순절 교육 대상—중앙성당 중·고·대학생 빠짐없이 참석바람 **일시**—3월 24일~26일 오후 7시 30분 강당
3. 연도 대회 : 3월 22일 오후 2시 각 신심단체 대항 등록—출전하실 팀은 3월 21일까지 사무실에 등록바람
4. 봄 판공 : 3월 31일~4월 4일까지
   3월 31일—서노 1·2·태평 1·2·고사(오후 7시부터) 4월 1일—진북·인후·금암(오후 7시부터), 2일—중·고등학생(오후 7시부터), 3일—경원·중노·기타(오후 7시부터), 4일—주일학교 어린이 오후 2시 30분 부터), 7일—병자 가정 방문하여 성사즘, 8일—공소(간중·용흥) 오전 10시 30분 간중리 공소에서 정한날에 꼭 보시고 교무금도 신입 하세요
5. 착한 사마리아인회 : 18일 오후 2시
6. 22일 오후 2시 : 4젠 모임

□ 지난주 봉헌금 : 531,31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궁 열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은혜의 밤 : 27일〈금〉 철야
2. 입원 환자 접수바람 : 본당 구역내에 중환자가 있을 때는 즉시 본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람
3. 지난주의 예비자 봉헌 : 5명
4. 성가정회 주 모임 : 25일〈수〉 저녁 미사후
5. 베소라 성서 강의 :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까지
6.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 매주〈월〉 오후 2시부터
7. 금주의 성경 읽기 : 신약의 요한복음 전체
8.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9.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 임

□ 지난주 봉헌금 : 247,08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주일학교 자모회 모임 : 자모님 많은 협조 바람. 교리 2시, 미사 3시 지난주 참석인원 141명
2. 청소년부 성지 순례(중·고생) : 3월 25일, 보좌 신부님인솔 참가비 500원
3. 주일학생 미사 : 오전 9시, 학생들의 참석 바람
4. 젊은이 미사 : 오후 7시,
5. 주일봉헌 예절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6. 공소판공 일정 : 전당리—23~24일, 미산리—24~25일내동리—26~27일, 동산촌—27일
7. 본당 판공일 : 4월 5일 매 미사후, 28일부터 성사표 찾아가세요
8. 성지순례 : 4월 8일, 참가비—5,000원, 장소—솔뫼
9. 차주 전례 : 주일 해설—김은식, 독서—① 정경신 ② 하근도, 기도—소병율·저녁 해설—주영란, 독서—① 한인수 ② 이성기, 기도—이서구

□ 지난주 봉헌금 : 318,76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정부회장, 4개분과 위원장·부위원장은 빠짐없이 출석 하세요
2. 미사시간 엄수 : 매 미사 10분전에 와서 준비 합시다
3. 가정 방문 : 23일—진북 1·2반, 24일—진북 3·4반, 25일—기타
4. 병자 봉성체 : 27일〈금〉 병자 가정에서는 26일까지 사무실에 연락 바람
5. 중·고등학생 미사 : 매주일 오전 9시—학생들은 주일 9시에 꼭 나오세요
6. 아치에스 행사 : 3월 22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7.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 후—허 데레사씨 지도 화요일 저녁 미사후—보좌 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 308,6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가정 방문 : 24일(9반), 25일(8반), 26일(7반), 27일(6반)반장님은 9시 30분까지 성당에 나와 주십시요
2.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 후 (성인반), 토요일 6시 미사 후 (학생)
3. 합동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후에 있음
4. 성가 연습 : 토요일 7시
5. 아치에스 행사 : 3월 22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6. 다음주 전례 : 독서—① 강남준 ② 황인구
7. 신자들의 기도—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 186,250원 교무금 : 124,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요안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입원 가정 방문 : 진북 2동 3·4·5반 공식 미사후
3.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매주 수·토요일각 7시 30분 —공식 미사후
4. 차주 전례 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① 김영진 ② 김경주기도—남상용
5. 신축기금 내 주신분 : 중앙성당 신입액 중— 이일규 (2만원), 전일하신 이판수 (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272,1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종 두

1. 글로리아 성가대 단합대회 : 3월 25일 오전 8시반 완산동 공동 터미날에서 모임, 장소—수류
2. 주일학교 어머니회 정기총회 : 22일〈일〉 공식미사 후
3. 다음주(24~27일)가정 방문 : 풍남동, 기타 동
4. 주일학교 교과서 판매중 : 값 800원
5. 여성 꾸르실료 참가 : 전재복 (모니카), 성낙인 (뽀리나), 이명자 (마리아) 많은 기도 바랍니다
6. 울뜨레아 : 28일〈토〉 오후 6시, 회비—2,000원
7. 수녀원 신축 기금 : 인후동 서정애 (45,000원)
8. 아치에스 행사 : 3월 22일 오후 2시 많은 참석 바람
9. 다음주 전례 담당 : 아침 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 이주영 ② 이준영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이덕수 ② 배양길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 이진홍 ② 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 445,09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기사회 피정 : 오늘 9시 30분 (도시락 지참)
2. 영세자집 방문 : 25일〈수〉, 27일〈금〉
3. 유아세례 : 다음주 오후 3시 미사후
4. 공소 봄 판공 : 3월 30일〈월〉 돌꼭지, 4월 1일〈수〉 두현리 공소
5. 아치에스 행사 : 덕진성당에서 4월5일 오후 1시 30분
6. 금주 전례 : 독서— ① 유 멜라니아 ② 유소피아, 기도—임로사, 김 마리아, 김말다, 홍 율리안나

□ 지난주 봉헌금 : 113,515원 교무금 : 118,000원
어린이 헌금 : 1,500원

✽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7440